



‘0명’ 얼마만이나 코로나 진정 국면

22일 71일만에 확진자 無 하루 뒤 23일엔 3명 확진 도 “변이 바이러스 확인 언제든지 집단감염 가능”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추가 감염자가 나타났다. 다만 최근 일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3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6월 초 급속도로 번지던 확산세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5시 기준) 도내에서 3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전날 71일 만에 맞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0명’의 기록은 하루도 채 안돼 깨지고 말았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237명으로 늘었으며 이날 들어선 195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0명 기록은 깨졌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든 점은 위안거리로 볼 수 있다.

6월 첫날부터 제주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연일 두 자릿수를 보였던 확진자 수는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후 12일 연속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지난 10일부터 ‘유행 역

제’ 상태인 1미만으로 내려가 현재 0.58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1주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5.57명에서 3.86명으로 떨어졌으며 한 때 2000명 이상을 기록했던 자가 격리자 수는 1/3 수준인 609명(접촉자 231명, 해외입국자 378명)으로 떨어졌다.

다만 제주도는 코로나19 진정 국면에도 최근 해외 변이 바이러스 검출자가 추가 확인되고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언제든 집단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성수기를 앞둔 제주지역은 수도권 수준의 방역 대응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을 줄이고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국적 확산세를 모니터링하며 방역 수칙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들은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규 감염자 3명 중 2명(1236·1237번)은 제주지역 거주자, 나머지 1명(1235번)은 서울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236번과 1237번은 스스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로 이중 1237번은 최근 수도권을 다녀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기자



“노루야, 맛있게 먹어...” 23일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노루 먹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송재호 선거법 위반 2라운드 돌입

1심 벌금 90만원... 검찰-송 의원 측 모두 항소 어제 광주고법 첫 공판... 30일 특별기일 진행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찰은 ‘특별기일’까지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를 갈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는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제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

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를 한 검찰은 ‘특별기일’까지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를 갈고 있다.

지난달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민속오일시장 유세는 ‘유죄’,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민속오일시장과 토론회 발언이 모두 유죄라고 설명하며 “특히 오일장 발언은 선거 직전 이뤄졌고, 다수에게 전파돼 양형 가중요인시장 유세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해당 발언을 했고, 추후 논란이 일자 유감 표명도 했다”며 “무보수 발언 역시 공무원 보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은 특별기일을 열어 방송토론회 당시 있었던 토론회문자와 토론회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영상자료와 녹취록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오는 30일 ‘특별기일’은 진행하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업자에 술 대접 받은 공무원 징계 정당”

지법 징계처분취소 소송 기각

항응을 받아 징계 처분이 내려진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웅 수석부장판사)는 A씨 등 공무원 3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대표 B씨와 식사를 한 후 B씨

에게 식대 28만6000원을 지불하게 했다. 이어 식당 인근에 있는 단란주점에서도 술자리를 가진 뒤 주대 130만원을 지불하게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4일 제주도는 이들에게 ‘견책 및 징계부금 부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화북공업단지 이전 관련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도 아니고 또 당시 식사비용이나 술값도 제주도 과장인 C씨가 부담한다고 생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은범기자 sebi1119@halla.com

화북천 매립 논란... 전 제주시장 피소

주민·참여연대 등 ‘하천법 위반’ 검찰에 고발

화북천 월류수 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은골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23일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제주시도상하수도본부 소속 A씨에 대해서도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제주시도상하수도 본부가 화북중계펌프장에 월류수처

리를 설치 공사 재개하면서 촉발됐다. 일부 주민들이 1992년 중계 펌프장 설치 당시 불법으로 하천을 매립, 약취와 수해 피해를 입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제출된 고발장도 화북중계펌프장 자체가 위법하게 설치됐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발장에 따르면 제주시가 1992년 화북천 하류 동쪽 갈래를 매립해 중계펌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청인 제주도에 허

가를 받지 않았다. 또 토지점용 허가 관련 신청서는 있지만 허가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허가를 얻어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는 중계펌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리청인 제주도가 제주시에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장이 요청하고 승인한 당시의 행정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권익위 “출동 경찰관 소속과 성명 밝혀야”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음부즈만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23일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성명을 알려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해당 경찰서에 경찰관이 공무원 중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경찰서는 112신고 출동 당시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며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경찰음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言)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송은범기자

1심서 수습역 대 벌금 맞은 일명 ‘악마의 잼’ 항소 기각

미등록 시설에서 일명 ‘악마의 잼’을 만들어 1심에서 수습역원의 벌금을 맞은 판매한 업자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3일 부적식품제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5억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7억5000만원의 선고를 받은 A(44)씨와 B(39·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잼을 만든 뒤 애월과 구좌읍 월정리 유명 카페 2곳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굴고리 + 안파고정판 + 안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마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은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줄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 원터치&조간편 길이 조절.
-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 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줄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슷해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28
상장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상품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하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농장등록번호 제18-2003-20-08

010-2699-2355

국내개발 우수한 [신상품]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하트메갈 ·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검정색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하트메갈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하트메갈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하트메갈 · 대조품종 - 레아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 카라향, 신화향(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 하굴, 팔사, 세미봉, 금금
-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사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중심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번길 1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